







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미지역은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및 베네수엘라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제역 오염지대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 일본 및 대만 3개국이 구제역 비발생지대로 인정되고 있던 아시아지역은 대만에서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96년의 보고에 의하면 부탄, 카보디아, 홍콩, 인도, 라오스, 말레이지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고 있으며, 혈청형별로 살펴보면 말레이지아에서는 O형, A형 및 아시아1형, 필리핀에서는 O형, 태국에서는 O형 및 아시아1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필리핀에서는 Luzon섬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땅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유럽에서는 1996년에는 그리스,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마케도니아 및 독립국가연합에서 그리고 1997년에는 불가리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하는 등 동부 및 남부지역에서 종식 및 재발생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 구제역 발생이 보고된 독립국가연합 소속국가들은 Transcaucasia,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및 카자흐스탄으로서 O형의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동부에서는 O형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1995년 4월,

터키의 Anatolian 지역에서는 A형의 바이러스가 분리, 확인된 바 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경우 산발적인 발생이 있으며, 요르단에서는 구제역이 풍토병화 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1995년 2월에는 사막지대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면양이 임상증상없이 폐사됨으로써 확인되었다. 가자지구에서는 1995년 5월 구제역 비발생지대에서 수입되어온 예방접종되지 않은 송아지에 감염되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혈청형별 발생지역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O형, A형 및 C형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남미,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SAT1, SAT2 및 SAT3형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에 한정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중동으로 전파되고 있다. 아시아1형은 극동 및 인도에서 주로 발견되나 때로 중동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 2)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정한 구제역 비발생국 명단

가축질병방역과 관련한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은 국제동물위생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나라로서 구제역 비발생인 국가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만, 동 목록은 각국 회람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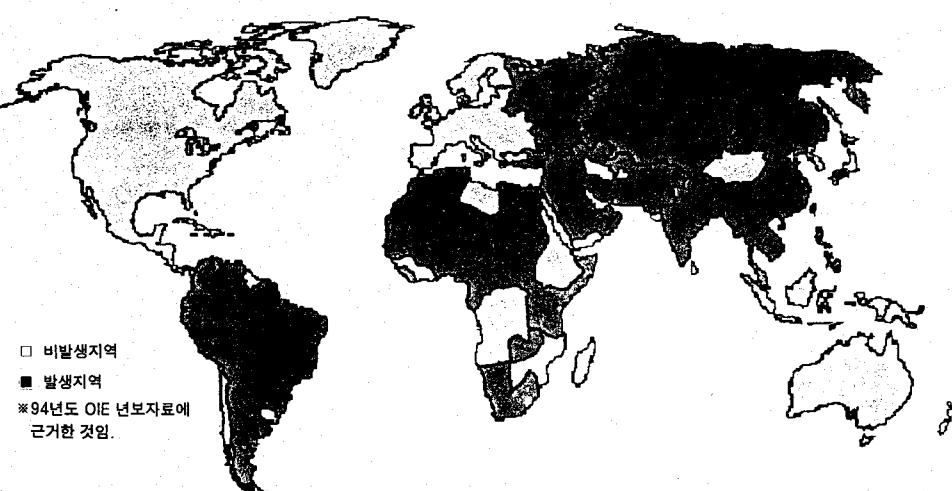


그림 4. OIE 년보에 의한 지역별 구제역 발생상황.



